



‘쌍화路 통(通)하다’

정읍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쌍화차 거리·재료 등 전시

정읍을 대표하는 아홉 곳의 명소(정읍 九景) 중 하나이자 도심 속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쌍화차 거리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린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제11회 기획특별전으로 쌍화차 거리의 독특한 역사성과 문화성을 조명한다. 5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쌍화路 통하다’가 열리는 것. 전시회에서는 쌍화차 거리의 현재, 쌍화당의 역사와 깊은 맛, 그리고 쌍화당을 만드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쌍화차(탕), 옹동 지황 등 전통음식문화의 가치도 재조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박물관대학 인문 토크쇼와 고대 초두(?차)와 천계호(天鷄湖) 만들기, 쌍화차 거리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쌍화차 거리는 정읍경찰서에서 정읍세무서까지 이어지는 길목이다. 중앙1길 350여m에 이르는 길가 양쪽에 모두 13개소의 전통찻집이 자리하고 있다. 이외 지역을 포함해 정읍에는 모두 25개소의 쌍화찻집이 있다. 쌍화차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됐다. 30년을 훌쩍 넘긴 쌍화당 찻집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쌍화당 찻집이 어우러진 정경은 소박하고 편안해, 정읍을 찾은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다. 쌍화차 거리에서는 넉넉한 한약재에 반과 대추, 은행, 견과류를 넣어 10시간 이상 푹 고아 쌍화차를 만든다. 시간에 따라 불세기를 달리하는 등 지극한 정성을 들여 고아낸 쌍화당은 맛과 향이 진해 웰빙(well-being)차로 특히 인기가 높다. 곱돌로 된 뚝배기에 담아내는 것도 이채로

운데, 목직의 돌덩이에 담긴 뜨끈한 쌍화차를 마시고 나면 몸이 한결 따뜻하고 개운해진다. 가래떡 구이와 고소한 깨 과자 업소마다 다양한 주전부리도 함께 내놓기도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읍에서 유독 쌍화당 문화가 융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쌍화당의 주재료인 숙지황에 주목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임금에게 진상했다고 하는 옹동 지황은 현재도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쌍화찻집 저마다의 독특한 맛과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30년 여 년의 시간을 품은 찻집에서부터 최근 트렌드를 받아들여 체인점이나 인터넷 쇼핑, 테이크아웃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는 찻집도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춤의 근본을 들여다본다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은 정기공연 ‘무본Ⅲ, 전승과 창조’를 오는 27일 예원당에서 갖는다. 이번 공연은 무본(舞本), 즉 ‘춤의 근본을 들여다본다’는 기획으로 2016년 ‘무본’ 초연 이후, 국악원 무용단이 선보이는 세 번째 우리 춤 시리즈다. 우리 춤의 근간을 이루는 정재와 민속춤, 그리고 동시대의 예술로 진화하는 창작춤을 문(정)·중(중)·동(동) 등 3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문(정)에서는 조선 건국 전, 꿈속에서 이상계가 진안 마이산에 올라 왕의 상징인 금척을 받아 조선 건국의 꿈을 세우게 되었다는 ‘몽금척’의 장중한 무대를 펼쳐 보인다. 이흥구 명무(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화연화대합설무 예능보유자)가 고증·자문을 맡아 ‘악학궤범’의 기록에 근거하여 무대에서 당시의 무악이 그대로 재현된다. 반주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함께 한다. 중(중)에선 북미경 국립민속국악원 안무자의 독무로 감상하는 ‘승무’와 ‘동초수건춤’ ‘동래학춤’을 잇따라 선보인다. 동초수건춤과 동래학춤은 무용단이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최선(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15호 호남살풀이춤 예능보유자) 명무와 이성훈(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예능보유자) 명무에게 지도를 받아 올리는 무대이다. 동(동)은 전통의 바탕에 현대적 해석을 덧붙인 ‘요즘 강강’으로 꾸며진다. 현대무용가 장은정이 협력안무로 참여한 이번 작품은 현대적 음악과 더불어 시대를 뛰어넘은 강강술래의 변신을 꾀한 무대다. 북미경 국립민속국악원 안무자는 “무본(舞本)을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이어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명무님들께 감사하다”며 “신명의 끝자락에 뛰어오르는 춤꾼들의 숨결까지 전해지는 감동의 무대를 만나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석무료. 예약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마중’ 3호 발간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소식지 ‘마중’ 3호가 발간됐다. 마중 3호에는 창립기념일인 4월 19일에 맞춰 올해 새롭게 출범한 재단 2기(2018~2019년)의 사업 소식과 함께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한 전북의 이야기, 그리고 전북문화에 대한 소식 등이 실렸다. 재단의 사업 소식으로는 2018 신규 사업을 태그(#)로 묶어보는 ‘태그로 보는 재단’과 올해 출범 2기를 맞아 재단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포커스 재단’,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핵심 사업을 소개하는 ‘재단 돋보기’ 등을 게재했다. 또 문화관광에 대한 방향성을 살필 수 있는 한민구 문화관광팀장의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올해 새롭게 신설한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의 비전에 대한 임진아 문화사업팀장의 ‘전북예술인복지의 시작을 준비하다’의 칼럼도 수록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한 전북이야기는 정여립을 재조명한 ‘역사 속, 전북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2018 뮤지컬 흥도’ 그리고 전북의 자연과 문화, 역사와 전통이 담긴 ‘전북 1000리길’을 다뤘다. 2018 전북관광브랜드공연 ‘흥도’는 정여립의 역사 속 이야기를 배경으로 애절한 사랑을 그린다. 오는 4월 27일 초연을 앞두고 있다. 전북문화 소식에는 ‘전북의 문화적 도시재생의 방향성에 대한 마중 담론’, 지역의 숨은 문화 가치 발굴 및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 확대를 위한 ‘숨은 문화 1인칭’, 사라져 가는 문화를 지킨 ‘전북의 명장’ 그리고 ‘지역의 원로 예술인’ 등을 다채롭게 담았다. /정해은 기자

전당, 교육부 STEAM 공모 선정

한국전통문화재단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모한 ‘2018 학교밖 STEAM 프로그램 개발·운영기관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당은 이번 공모에 ‘지역문화자원(천년한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키트 개발·운영’이라는 주제로 지원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전당은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으며, 한지산업지원센터 내에 마련된 시설을 활용해 ‘천년한지, 향을 품다’ ‘천년한지 색을 머금다’는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정해은 기자

2018 예술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재)전주문화재단은 2018년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인과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전주 신진예술가, 시각예술, 공연예술, 국제교류, 전주 백인의 자화상, 서울아트마켓(PAMS) 홍보 지원, 국가공모사업 지원 등 총 7개 부문에서 실시한다. 특히 유망한 젊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전주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의 데 뷔작품지원과 유망작품지원 외에 ‘점프컨설팅 지원’ 부문이 신설됐다. 신청마감은 5월 8일까지.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